2019학년도 수능대비

문학 파이널 고전시가편

(기출의 관점 파악 + 개념정리 + EBS 필수작품)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現 대치 이강학원

前 외고, 자사고 특강, 이투스

[저서] 사관학교 1차시험 실전모의고사

[감수] 비문학 교과서독해 시리즈

Orbi Class

[1] "자연의 주제" 고전시가 정복

■ 자연에 대한 주제 패턴은 꼭 암기하고 가자!

자연 : 강호, 강산, 강천, 청산, 산수, 산천, 임천, 송간, 죽립, 청풍명월, 유수, 백구, 풍월 등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계열**
→ 가난속에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
(소박한 차림 - 도롱이, 삿갓, 죽장 망혜 / 소박한 음식 - 박주 산채, 보리밥 풋나물)
→ 띠집, 초려삼간, 나물, 소부허유

② **유유자적(悠悠自適) 계열** → 자연속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는 태도

③ **자연동화(自然同化) 계열**
→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

④ **무릉도원(武陵桃源)** → 자연적 이상향

⑤ **탈속적 경지** →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거

⑥ **풍류적 태도** → 술, 음악 (거문고, 가야금)

■ 계절적 배경 총정리

■ EBS 수능특강 65P : 김천택 / 흰 구름 푸른 ᄂᆡ는 ~

흰 구름 푸른 ᄂᆡ는 골골이 잠겻는듸
추풍(秋風)에 물든 단풍(丹楓) 봄곳도곤 더 죠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ᄒᆞ야 뫼 빗츨 쑴여 ᄂᆡ도다

– 김천택

■ EBS 수능특강 65P : 정구 / 청산아 웃지 마라 ~

청산(靑山)아 웃지 마라 백운(白雲)아 조롱(嘲弄) 마라
백발(白髮) 홍진(紅塵)*에 내 즐겨든니더냐
성은(聖恩)이 지중(至重)ᄒᆞ시니 갑고 가려 ᄒᆞ노라

– 정구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EBS 수능특강 67P : 말 없슨 청산이오 ~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ㅣ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ᄌᆞ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즁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성혼

■ EBS 수능특강 67P : 윤선도 / 우후요

구즌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룸 걷단 말가
압내희 기픈 소히 다 묽앗다 ᄒᆞᄂᆞᆫ다
진실(眞實)로 묽디옷 묽아시면 갇긴 시서* 오리라

– 윤선도, 「우후요(雨後謠)」

■ EBS 수능특강 73P : 송순 / 면양정가

흰 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셩 들명셩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ᄂᆞ리거니 장공(長空)의 써나거니
광야(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토락 지트락 사양(斜陽)과 서거지어
세우(細雨)조ᄎᆞ 쑤리는다 남여(籃輿)롤 ᄇᆡ야 타고
솔 아ᄅᆡ 구븐 길노 오며 가며 ᄒᆞ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ᄒᆞ는괴야
나모 새 ᄌᆞᄌᆞ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백 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펴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긋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ᄲᅡ진 후의 산 빗치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ᄯᅩ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지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돌롤 ᄯᅡ라 브니는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매몰커놀
조물(造物)리 헌ᄉᆞᄒᆞ야 빙설(氷雪)노 ᄭᅮ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低)에 버러셰라
건곤(乾坤)도 가옵열샤 간 대마다 경(景)이로다
인간(人間)을 써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ᄇᆞ람도 혀려 ᄒᆞ고 돌도 마즈려코
ᄇᆞᆷ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아ᄎᆞᆷ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놀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ᄒᆞ랴
이 뫼히 안ᄌᆞ 보고 져 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ᄒᆞᆫ ᄆᆞᅀᆞᆷ의 ᄇᆞ릴 일리 아조 업다
쉴 ᄉᆞ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다만 ᄒᆞᆫ 청려장(靑藜杖)*이 다 뫼되여 가노ᄆᆡ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닉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ᄅᆡ로 취흥(醉興)을 ᄇᆡ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롬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져츠락
을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넙고넙고 일월(日月)도 ᄒᆞᆫ가ᄒᆞ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긔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浩蕩) 정회(情懷)야 이에셔 더홀 소냐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산람 : 산 아지랑이.
* 경궁요대 :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 놓은 궁궐과 대(臺).
* 옥해 은산 : 옥 같은 바다와 은 같은 산.
* 청려장 :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 희황 : 중국 상고 시대의 제왕인 복희씨.

[면앙정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서사> 제월봉과 면앙정의 형세

无等山(무등산) 한 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霽月峯(제월봉)이 되여거날
(무등산을)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므삼 짐쟉 하노라
끝 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닐곱 구비 한데 움쳐 므득므득 버럿난 닷.
일곱 굽이가 한데 움치리어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가온대 구비난 굼긔 든 늘근 뇽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랄 안쳐시니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며,
너라바회 우해 송죽을 헤혀고 정자를 안쳐시니
넓고 편편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혀 놓았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나릐 버렷난 닷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

<본사 1> 면앙정의 아름다운 경치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나린 믈이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리는 물이
정자 압 너븐 들해 올올히 펴진 드시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잇달아) 퍼져 있으니,
넙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넓으면서도 길며 푸르면서도 희다는 뜻),
雙龍(쌍룡)이 뒤트난 닷, 긴 깁을 채폇난 닷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하게 펼쳐 놓은 듯,
어드러로 가노라 므삼 일 배얏바
어디를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닷난 닷 따로난 닷 밤낫즈로 흐르난 닷 시냇물의 아름다운 경치 <근경(近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다.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갓치 펴뎠는데
물 따라 벌여 있는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펴졌는데,
어즈러온 기럭기난 므스거슬 어로노라 안즈락 나리락 모드락 흣트락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통정(通情)하려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蘆花(노화)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난고 물가의 기러기 <근경(近景)>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 다니는고?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날 아래 두르고 꼬잔 거슨 뫼힌가 屛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노픈 닷 나즌 닷 긋난 닷 닛난 닷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어즈러온 가온데 일흠난 양하야 하날도 젓티 아녀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체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독이 셧난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우뚝 선 것이 추월산 머리 삼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虛空(허공)에 버러거든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어져 있는 데,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믄 것도 하도 할샤. 면앙정 주위의 산봉우리 <원경(遠景)>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문 것(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 EBS 수능특강 76P : 박인로 / 독락당

푸른 담쟁이 헤치고 독락당을 지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수많은 긴 대나무 시내 따라 둘러 있고
만 권의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왼쪽엔 안증(顔曾), 오른쪽엔 유하(游夏).
서책을 벗 삼으며 시 읊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독락(獨樂),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獨樂園)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의 참 즐거움 이 독락에 견줄쏘냐.
진경(眞境)을 다 못 찾아 양진암(養眞菴)에 돌아들어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자필(自筆)이 참인 줄 알겠노라.
관어대(觀魚臺)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盤石)에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장송(長松)은 옛 빛을 띠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풍 절로 되어
용면(龍眠)의 솜씨로 그린 듯이 벌여 있고
깊고 맑은 못에 천광 운영(天光雲影)*이 어리어 잠겼으니
광풍제월(光風霽月)*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연비어약(鳶飛魚躍)*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聖賢)의 일 도모하시도다.
맑은 시내 비껴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네.
묻노라, 갈매기들아. 옛 일을 아느냐.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漢)나라로 갔단 말인가.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연기 잠겼어라.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고금 없이 좋은 경치에 맑은 흥 절로 나니
풍호영이귀(風乎詠而歸)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대(臺) 아래 연못에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벽옥(碧玉) 같은 넓은 잎에 퍼지는 것 구슬이로다.
이러한 맑은 경치 봄 직도 하다마는
염계(濂溪)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났는가.
변함없는 맑은 향기 다만 혼자 남았구나.
안개 비낀 아래에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벼랑 높은 끝에 긴 냇물 걸린 듯.
향로봉 그 어디오, 여산이 여기인가.
징심대 굽어보니 찌든 가슴 새로운 듯하다마는
적막한 빈 대에 외로이 앉았으니

맑은 바람 잔잔한 물에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우거진 녹음에 온갖 새 슬피 운다.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취 다 찾으니
탁영대(濯纓臺) 연못은 고금 없이 맑다마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갓끈 씻을 줄 그 뉘 알리.

– 박인로, 「독락당(獨樂堂)」

*천광 운영: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광풍제월: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
*연비어약: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뜀.

■ EBS 수능특강 303P : 성산별곡

오동(梧桐) 서리돌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나진돌 그러홀가
호주(湖洲) 수정궁을 뉘라셔 옴겨 온고
은하롤 쒸여 건너 광한전의 올랏ᄂᆞᆫ ᄃᆞᆺ
싹 마ᄌᆞᆫ 늘근 솔란 조대(釣臺)에 셰여 두고
그 아래 ᄇᆡ롤 씌워 갈 대로 더뎌 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 어ᄂᆞ ᄉᆞ이 디나관ᄃᆡ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소히 ᄇᆡᆺ머리예 다하셰라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쇼 머기ᄂᆞᆫ 아ᄒᆡ들이
석양의 어위 계워 단적(短笛)을 빗기 부니
믈 아래 ᄌᆞᆷ긴 용이 ᄌᆞᆷ ᄭᅵ야 니러날 ᄃᆞᆺ
ᄂᆡ씌예* 나온 학이 제 기솔ᄇᆞ리고
반공(半空)의 소소 ᄲᅳᆯ ᄃᆞᆺ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추칠월(秋七月)이 됴타 호ᄃᆡ
팔월(八月) 십오야(十五夜)롤 모다 엇디 과ᄒᆞᄂᆞᆫ고*
셤운(纖雲)이 사권(四捲)ᄒᆞ고 믈결이 채 잔 적의
하ᄂᆞᆯ의 도ᄃᆞᆫ ᄃᆞᆯ이 솔 우ᄒᆡ 걸려거ᄃᆞᆫ
잡다가 빠딘 줄이 적선(謫仙)*이 헌ᄉᆞ홀샤
공산(空山)의 싸힌 닙흘 삭풍이 거두 부러
쎄구름 거ᄂᆞ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천공(天公)이 호ᄉᆞ로와 옥으로 고ᄌᆞᆯ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ᄭᅮ며곰 낼셰이고
압 여흘 ᄀᆞ리 어러* 독목교(獨木橋) 빗겻ᄂᆞᆫᄃᆡ
막대 멘 늘근 즁이 어ᄂᆡ 뎔로 간닷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롤 ᄂᆞᆷᄃᆞ려 헌ᄉᆞ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롤 ᄎᆞᄌᆞ리 이실셰라
산중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롤 ᄲᅡ하 두고
만고 인물을 거ᄉᆞ리 혜여ᄒᆞ니
성현도 만ᄏᆞ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ᄂᆞᆯ 삼기실 제 곳 무심홀가마ᄂᆞᆫ
엇디ᄒᆞᆫ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ᄒᆞ얏ᄂᆞᆫ고
모롤 일도 하거니와 애ᄃᆞᆯ옴도 그지업다
기산(箕山)의 늘근 고불 귀ᄂᆞᆫ 엇디 싯돗던고*
일표(一瓢)롤 ᄲᅧᆯ틴 후의* 조장*이 ᄀᆞ장 놉다
인심이ᄂᆞᆺᄀᆞᆺᄐᆞ야 보도록 새롭거ᄂᆞᆯ
세사(世事)ᄂᆞᆫ 구롬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ᄌᆞᆫ 술이 어도록 니건ᄂᆞ니
잡거니 밀거니 슬ᄏᆞ장 거후로니
ᄆᆞᅀᆞᆷ의 ᄆᆡ친 시룸 져그나 ᄒᆞ리ᄂᆞ다
거믄고 시욹 언저 풍입송(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다 니저ᄇᆞ려셔라

장공(長空)의 썻ᄂᆞᆫ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瑤臺) 월하(月下)*의 힝혀 아니 만나신가
손이셔 주인ᄃᆞ려 닐오ᄃᆡ 그ᄃᆡ 긘가 ᄒᆞ노라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천암만학: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홍료화: 붉은 여뀌꽃.
*백빈주: 흰 마름꽃이 피어 있는 물가.
*ᄂᆡ씌예: 연기에.
*소선 적벽: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과ᄒᆞᄂᆞᆫ고: 칭찬하는가?
*적선: 강에 비친 달을 건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백을 이르는 말.
*ᄀᆞ리 어러: 가로 얼어.
*한기: 책.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기산의 ~ 싯돗던고: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일표롤 썰틴 후의: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조장: 기개 있는 품행.
*풍입송: 악곡 이름.
*요대 월하: 신선이 사는 달 아래.

[성산별곡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건마는 어찌 한 강산을
그처럼 낫겨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고 아니 나오시는고
솔뿌리를 다시 쓸고 대자리를 보아 잠깐 동안 올라 앉아
주위를 어떤가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 서석대로
집을 삼아나가는 듯 드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고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을 둘러 있으니
천손(天孫)의 비단폭을 그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쳐 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중(山中)에 달력 없어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앞의 헤쳐 있는 풍경이 사철 따라 저절로 나타나니
듣고 보는 일이 모두 다 선계(仙界)로다.

/ 서사-김성원의 전원 심취와 식영정 주변의 모습

매창(梅窓) 아침 볕의 향기에 잠을 깨니
산늙은이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아니하다.
울타리 밑 양지쪽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김을 매거니 북들 돋우거니 비온 김에 가꿔내니
청문(靑門)의 고사를 지금도 있다 하겠도다
짚신을 죄어 신고 대지팡이 흩어 짚으니 도화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 있구나 맑게 닦은 거울 속에 절로 그린 돌병풍
그림자를 벗삼고 서하로 함께 가니
무릉도원이 어디냐 여기가 거기로다

/본사1-성산의 봄 풍경

남풍이 건 듯 불어 녹음(綠陰)을 헤쳐 내니
철 아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왔던가.
희황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 물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을 여며 입고 갈건을 비스듬히 쓰고
허리를 꾸부리며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비 온 뒤에 홍련(紅蓮) 백련(白蓮)이 섞어피니
바람기 없이도 모든 산이 향기로다.
주렴계를 마주 보아 태극설(太極說)을 묻는 듯
태을진인(太乙眞人)이 구슬 옥자(玉字)를 헤쳐 놓은 듯
노자암을 건너 보며 자미탄(紫微灘)을 곁에 두고
큰 소나무 차일 삼아 돌바닥 길에 앉으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 여기서는 가을이라
맑은 강에 떠있는 오리 백사장이 옮아 앉아
갈매기를 벗삼고 잠을 깰 줄 모르나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

/본사2-성산의 여름 풍경

■ EBS 수능완성 111P : 병산육곡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에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수>

천심 절벽(千尋絶壁) 섰는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늙어 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보리밥 파 생채를 양 맞춰 먹은 후에
모재(茅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웠으니
눈앞에 태공 부운(太空浮雲)*이 오락가락하노라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져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이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마라 내곧 서러워하노라

<제4수>

저 까마귀 쫓지 마라 이 까마귀 쫓지 마라
야림(野林) 한연(寒煙)*에 날은조차 저물거늘
어여뿔사 편편 고봉(翩翩孤鳳)*이 갈 바 없어 하놋다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져 간다 고깃배 떴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火)*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 「병산육곡(屛山六曲)」

*염치: 싫어하지.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어조 생애: 낚시하는 삶.
*모재: 띠로 지붕을 인 집.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낙화 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한연: 쓸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연화: 인가에서 불을 때어 나는 연기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기척 또는 인가를 이르는 말.

■ EBS 수능완성 251P : 노계가

비금주수(飛禽走獸)*는 여섯 가축이 되었거늘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밭을 갈아
먹고 못 남아도 그칠 때는 없노라
무진(無盡)한 강산과 허다(許多)한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땅은
자손에게 물려주거니와 명월청풍(明月淸風)은
나눠 주기 어려우니 재주 있든 없든
부모 뜻에 따라 효도하는 아들 하나 태백(太白), 연명(淵明)의 증서로 / 길이 물려주리라 나의 이 말이
우활(迂闊)한* 듯하지만 자손 위한 계책은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또 어리석은 이 몸은
인자(仁者)도 아니요 지자(智者)도 아니로되
산수(山水)에 벽(癖)이 생겨 늙을수록 더하니
저 귀(貴)한 삼공(三公)과 이 강산을 바꿀쏘냐
어리석고 미친 이 말에 웃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하물며 명시(明時)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世間) 명리(名利)란 뜬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물외심(物外心)만 품고서
이내 생애(生涯)를 산수 간(山水間)에 부쳐 두고
길고 긴 춘일(春日)에 낚싯대 비껴 쥐고
갈건(葛巾) 포의(布衣)로 조대(釣臺)에 건너오니
산우(山雨)는 잠깐 개고 태양이 쬐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경면(鏡面)이 더욱 밝다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리로다
고기도 낯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차마 어찌 낚겠는가
낚시 놓고 배회(徘徊)하며
물결을 굽어보니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우연(魚躍于淵)*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문득 놀라 괴이하여
아래를 두루 굽어 살피고 위를 우러러보니 상하천(上下天)이 완연(宛然)하다 / 한 줄기 동풍(東風)에 어
찌하여 어적(漁笛)이
높이 불어오는가 강천(江天)이 적적한데
반갑게도 들리는구나 임풍(臨風) 의장(倚杖)*하여
좌우(左右)로 돌아보니 대중(臺中) 청경(淸景)이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벽수(碧水) 장천(長天)은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백구(白鷗)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박인로, 「노계가」

*비금주수: 날짐승과 길짐승.
*우활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운영천광: 구름 그림자와 하늘 빛.
*어약우연: 못 속에서 고기가 뛰어놂.
*임풍 의장: 지팡이를 짚고 바람을 맞음.

[노계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노계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해석]
巖畔 山花(암반 산화)ᄂᆞᆫ 錦繡屛(금수병)이 되야 잇고	바위 위에 핀 산꽃은 수놓은 비단 병풍이요,
澗邊 垂楊(간병 수양)은 草綠帳(초록장)이 되야거든	여울 가 버들가지 초록 장막 되었거늘
良辰 佳景(양진 가경)을 내 혼자 거ᄂᆞ리고	좋은 시절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正値 花時(정치 회시)를 虛度치 밀냐 너겨	바로 꽃이 한창일 때 헛되이 안 보내려
아희 불너 하ᄂᆞᆫ 말숨이	아이 불러 하는 말이
深山 窮谷(심산 궁곡)애 海錯(해착)이야 보로소냐	깊고 깊은 산골에서 해산물을 맛보겠나.
살진 고사리 香氣(향기)ᄒᆞᆫ 當歸草(당귀초)를	살찐 고사리에 향기 나는 당귀풀을
猪脯 鹿脯(저포 녹포) 相間(상간)ᄒᆞ야	저포 녹포 사이에다 쟁여 두었다가
크나큰 細柳筒(세유사)애 洽足(흡족)히 다마두고	큰 버들 바구니에 흡족하게 담아 두고
鮒魚膾(부어회) 初味(초미)예	붕어로 회를 쳐서 첫 맛을 즐긴 뒤에
訥魚(눌어) 生雉(생치) 서거 구어	누치와 꿩고기를 섞어서 구웠다가
빗빗치 드리거든	가지가지 들이거든
瓦樽(와준)에 白酒(백주)를 박잔의 가득 부어	흙그릇에 막걸리를 박잔에 가득 부어
ᄒᆞᆫ 잔 또 ᄒᆞᆫ 잔 醉(취)토록 먹은 後(후)에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마신 후에
桃花(도화)ᄂᆞᆫ 紅雨(홍우)되야 醉面(취면)에 ᄲᅮ리ᄂᆞᆫᄃᆡ	복숭아꽃 붉은 비되어 취한 얼굴에 흩어지고
苔磯(태기) 너븐 돌애 놉히 베고 누어시니	이끼 낀 넓은 바위 높이 베고 누웠으니
無懷氏(무회씨) 적 사ᄅᆞᆷ인가	무회씨 때 사람인가,
葛天氏(갈천씨) ᄭᅴ 百姓(백성)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羲皇盛時(희황 성시)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	복희씨 때 태평성대 다시 보면 여기로다.
이 힘이 뉘 힘고 聖恩(성은)이 아니신가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江湖(강호)애 물너신들 憂君一念(우군일념)이야	강호로 물러난들 임금님 걱정이야
어닉 刻(각)애 이ᄌᆞᆯᄂᆞᆫ고	어느 때에 그치겠나.
時時(시시)로 머리 드러 北辰(부진)을 ᄇᆞ라보고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ᄂᆞᆷ 모ᄅᆞᄂᆞᆫ 눈물을 天一方(천일방)의 디이ᄂᆞ다	남 모르는 눈물을 하늘 아래 뿌리도다.
一生(일생)애 품은 ᄯᅳᆺ을 비옵ᄂᆞ다 하ᄂᆞ님아	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니다, 하느님아.
山平 海渴(산평 해갈)토록	산이 평평해지고 바다가 마르도록
우리 聖主(성주) 萬歲(만셰)소셔	우리 임금님 만세를 누리소서.
熙皞 世界(희호 세계)예	백성들이 화락한 세계에
三代 日月(삼대 일월) 빗취소셔	삼대의 해와 달을 비추어 주소서.
於千萬年(어천만년)에 兵革(병혁)을 쉬우소셔	천년만년 전쟁을 쉬게 하소서.
耕田 鑿井(경적 착정)에 擊壤歌(격양가)를 불리소셔	우물 파고 밭을 갈며 격양가를 불게 하소서.
이 몸은 이 江山風月(강산풍월)에 늘글 주를 모ᄅᆞ로라	이 몸이 강산풍월에서 늙을 줄을 모르나이다.

■ EBS 수능완성 252P : 산중잡곡

지당(池塘)에 활수(活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앉아서 보고 듣거든 돌아갈 줄을 모르노라

<제2수>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左右)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山菜羹) 무로 삶아
조석(朝夕)에 풍미(風味)가 족(足)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

*활수: 흐르는 물.
*청뢰: 맑은 바람 소리.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산중잡곡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산중잡곡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해석]
* 산중잡곡(山中雜曲) 18수 世上(세상)애 사ᄅᆞᆷᄃᆞ리 모다 모다 채 어리다 살 줄만 알고 주글 주를 모ᄅᆞᄂᆞ다 엇다 다 두고 두고셔 먹을 주ᄅᆞᆯ 모ᄅᆞᄂᆞᆫ다	* 산중잡곡(山中雜曲) 18수 해석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모두 어리석네. 살 줄만 알고 죽을 줄은 모르누나. 어디에 다 두고 두고서 먹을 줄을 모르는가.
* 산중잡곡(山中雜曲) 20수 내 貧賤(빈천) 보내려 ᄒᆞᆫᄃᆞᆯ 이 貧賤(빈천) 뉘게 가며 ᄂᆞᆷ의 富貴(부귀) 오과다 ᄒᆞᆫᄃᆞᆯ 뎌 富貴(부귀)이 내게 오랴 보내디도 청티도 말오 내 분ᄊᆡ로 ᄒᆞ리라	* 산중잡곡(山中雜曲) 20수 해석 내 빈천을 보내려니 이 빈천 뉘게 가며 남의 부귀 오라 한들 저 부귀 내게 오랴. 보내지도 청하지도 마라. 내 분수대로 살리라.
* 산중잡곡(山中雜曲) 21수 功名(공명)도 잇고 뎌마다 ᄯᅳ로리도 만코 만코 富貴(부귀)는 더욱 마다 시ᄅᆞᆷ이 하고 하다 아마도 이 내 貧賤(빈천)이사 즐거오미 그지 업다	* 산중잡곡(山中雜曲) 21수 해석 공명도 잊고 저마다 따를 이도 많고 많은데 부귀는 더욱 많으면 시름도 많고 많다. 아마도 이 내 빈천이야 즐거움이 끝이 없노라.
* 산중잡곡(山中雜曲) 49수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롤로다 진실노 늘근 줄을 모ᄅᆞ거니 ᄆᆡ일 만나 즐기리라	* 산중잡곡(山中雜曲) 49수 해석 늙은이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구나.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르노라. 진실로 늙은 줄 모르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2] "유교주제" 고전시가 정복

■ 유교적 주제 (양반, 상류층)

① **임금에 대한 충성심, 지조, 절개**
→ 매, 난, 국, 죽, 소나무
→ 변하지 않는 속성, 높고 꼿꼿한 속성에 주목!

② **효도, 신의, 우애 등**

③ **정명사상**
→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 교훈을 주는 작품 (정학유 농가월령가 등)
→ 지배층의 역할에 대해 교훈을 주는 작품 (허전 고공가 등)

■ 연군지정의 포인트 찾기

(기출로 살펴보는 출제의 Point)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ᄃᆞᆯ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ᄅᆞᆷ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 이현보의 '어부단가' 제5수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시어]

구룸이 無心(무심)ᄐᆞᆫ말이 아마도 虛浪(허랑)ᄒᆞ다.
中天(중천)에 ᄯᅥ이셔 任意(임의)로 ᄃᆞ니면셔
구ᄐᆡ야 光明(광명)ᄒᆞᆫ 날빗ᄎᆞᆯ 싸라가며 덥ᄂᆞ니.

- 이존오의 시조

[임금=빛, 사랑하는 임]

빙자옥질(氷姿玉質) 이여 눈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안민영 '매화사'

[지조, 절개를 뜻하는 관습적 상징]

■ EBS 수능특강 71P : 이세보 / 농부가

좌수(左手)의 잡은 춘광(春光) 우수(右手)로 옴겨 닉어
농부가 흥을 계워 수답(水畓)의 이종(移種)ᄒᆞ니*
아마도 성세 낙민(聖世樂民)은 이뿐인가 <제3수>

초운(初耘) 재운(再耘) 풀 밀 적의 저 농부 수고한다
ᄉᆞ립 쓰고 호미 들고 상평(上坪) 하평(下坪) 분주하다
아마도 실시(失時)ᄒᆞ면* 일 년 ᄉᆡᆼ이허사(虛事)인가 <제4수>

근고(勤苦)ᄒᆞ여*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물어 근심터니
유연 작운(油然作雲)*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ᄒᆞ다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 성화(聖化)*신가 <제5수>

백로(白露) 상강(霜降) 다닷거든 낫 가러 손의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百穀)이 다 익엇다
지금의 실시(失時)헌 농부야 일어 무삼 <제6수>

일 년을 수고ᄒᆞ여 백곡이 풍등(豐登)ᄒᆞ니*
우순풍조(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 어이ᄒᆞ리
아마도 국태평(國太平) 민안락(民安樂)은 금세(今世)신가 <제7수>

그ᄃᆡ 추수(秋收) 얼마 헌고 ᄂᆡ 농ᄉᆞ 지은 거슨
토세(土稅) 신역(身役) 밧친 후의 몃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ᄒᆞ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 <제8수>

- 이세보, 「농부가(農夫歌)」

*이종ᄒᆞ니: 모종을 옮겨 심으니. / *실시ᄒᆞ면: 때를 놓치면.
*근고ᄒᆞ여: 마음과 몸을 다하며 애써. / *유연 작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름.
*우순풍조: 비가 때맞추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붊. / *성화: 임금이나 성인이 덕으로써 교화함.
*풍등ᄒᆞ니: 풍성하니. / *함포고복: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

[농부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농부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해석]
정월의 농긔 닥고 이월의 밧츨 간다 **쟝졍은 들의 놀고 노약은 집의 잇셔** **지금의 게으른 ᄌᆞ부 신측한다** <제1수> **츈일리 ᄌᆡ양ᄒᆞ니 챵경이 우짓는다** **뒤 뫼의 풀를 ᄲᆡ고 압논의 번경이라** **아희야 들졈심 ᄂᆡ여 올 제 슐 잇지** **마라**<제2수>	정월에 농기구 닦고 이월에 밭을 간다 장정들은 들에서 놀고 노약자들은 집에 있어 지금의 게으른 며느리들은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한다 <제1수> '시경'의 한구절 : 춘일재양 유명창경-봄날 햇볕 따뜻해져 꾀꼬리 울어댄다 뒷산의 풀을 깎고 앞 논은 갈아 뒤집기 한다 아이야 들 점심 내어올 때 술 잊지마라 <제2수>

■ EBS 수능특강 88P : 정약용 견여탄

사람들이 가마 타기 좋은 줄만 알고	人知坐輿樂
가마 메는 고통은 알지 못하네	不識肩輿苦
가마 메고 높은 비탈을 오를 적엔	肩輿上峻阪
빠르기가 산 오르는 사슴과 같고	捷若躋山麚
가마 메고 낭떠러지를 내려갈 적엔	肩輿下懸崿
우리로 돌아가는 양처럼 쏜살같으며	沛如歸苣羖
가마 메고 깊은 구덩일 뛰어넘을 땐	肩輿超谽豃
다람쥐가 달리며 춤추는 것 같다오	松鼠行且舞
바위 곁에선 살짝 어깨를 낮추고	側石微低肩
좁은 길에선 민첩하게 다리를 꼬기도	窄徑敏交股
절벽에서 깊은 못을 내려다보면	絶壁頫黝潭
놀라서 넋이 달아날 지경이건만	駭魄散不聚
평탄한 곳처럼 신속히 달리어라	快走同履坦
귓구멍에 씽씽 바람이 이는 듯하니	耳竅生風雨
이 때문에 이 산에 노닐 적엔	所以游此山
이 낙을 반드시 먼저 꼽는다오	此樂必先數
멀리 돌아서 관첩*을 얻어 오는데도	紆回得官帖
역속들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데	役屬遵遺矩
더구나 너희야 역마 타고 부임하는	矧爾乘傳赴
한림학사를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翰林疇敢侮
통솔하는 아전은 채찍과 매를 쥐고	領吏操鞭扑
우두머리 중은 대오를 정돈하여	首僧整編部
영접하는 덴 시한을 어기지 않고	迎候不差限
가는 데는 엄숙히 서로 뒤따라서	肅恭行接武
헐떡이는 숨소리는 여울 소리에 섞이고	喘息雜湍瀑
땀국은 헌 누더기에 흠뻑 젖누나	汗漿徹襤褸
움푹 팬 곳 건널 땐 옆 사람이 받쳐 주고	度虧旁者落
험한 곳 오를 땐 앞사람이 허리 굽히네	陟險前者傴
새끼에 눌려 어깨엔 혹이 생기고	壓繩肩有瘢
돌에 부딪쳐 멍든 발은 낫지를 않네	觸石跰未癒
스스로 고생하여 남을 편케 함이니	自瘁以寧人
당나귀나 말과 다를 것이 없구나	職與驢馬伍
너와 **나**는 본시 같은 민족으로서	爾我本同胞
하늘의 조화를 똑같이 타고났건만	洪匀受乾父
네 어리석어 이런 천역을 감수하니	汝愚甘此卑
내가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吾寧不愧憮
나는 너에게 덕 입힌 것 없는데	吾無德及汝
어찌 **너희** 은혜만 받는단 말이냐	爾惠胡獨取
형이 아우를 불쌍히 안 여기면	兄長不憐弟
부모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겠는가	慈衷無乃怒
중의 무리는 그래도 괜찮거니와	僧輩猶豁矣

저 산 밑의 민호들이 애처롭구나	哀彼嶺下戶
큰 지렛대 쌍마의 가마에다가	巨槓雙馬轎
온 마을 사람들은 복마꾼 참마꾼으로 동원하네	服驂傾村塢
개와 닭처럼 마구 몰아대니	被驅如犬鷄
으르는 소리 시호*보다 고약하도다	聲吼甚豺虎
가마 타는 덴 옛 경계가 있는데도	乘人古有戒
이 도리를 분토처럼 버린지라	此道棄如土
김매던 자는 호미를 놓아 버리고	耘者棄其鋤
밥 먹던 자는 먹던 밥을 뱉고서	飯者哺而吐
아무 죄 없이 꾸짖음을 당하면서	無辜遭嗔喝
만 번 죽어도 머리만 조아리어	萬死唯首俯
가까스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顚頷旣踰艱
어허, 그제야 노략질을 면하도다	噫吁始贖擄
가마 탄 자 한마디 위로도 없이	片言無慰撫
호연히 일산 드날리며 떠나가거든	浩然揚傘去
힘이 다 빠진 채 밭으로 돌아와선	力盡返其畝
실낱 같은 목숨 시름시름하누나	呻唫命如縷
내 이 때문에 견여도를 그려 내어	欲作肩輿圖
돌아가 임금님께 바치려고 하노라	歸而獻明主

– 정약용, 「견여탄(肩輿歎)*」

*관첩: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
*시호: 승냥이와 여우.
*견여탄: 가마꾼의 탄식. '견여(肩輿)'는 사람 둘이 앞뒤에서 어깨에 메는 가마를 이름.

■ EBS 수능완성 154P : 고공가

집의 옷 밥을 언고 들먹는* 져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긔별을 아는다 모로는다
비 오는 놀 일 업슬 ᄌᆡ 솟 ᄭᅩ면셔* 니ᄅᆞ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롬ᄉᆞ리* ᄒᆞ려 ᄒᆞᆯ ᄌᆡ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롬이 졀로 모다
플 ᄲᅥᆺ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田畓)을 긔경ᄒᆞ니
오려논 터밧치 여드레 ᄀᆞ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ᄒᆞ야 대대(代代)로 나려오니
논밧도 죠커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옴여리* 사던 것슬
요ᄉᆞ이 고공들은 혬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큰나 쟈그나 동옷시* 죠코 즈나
ᄆᆞᅀᆞᆷ을 ᄃᆞᆺ호는 듯 호슈*을 ᄉᆡ오는 듯*
무ᄉᆞᆷ일 갬드러* ᄒᆞᆯ긧할긧 ᄒᆞᄂᆞᆫ다
너희ᄂᆡ 일 아니코 시절(時節)좃ᄎᆞ ᄉᆞ오나와
ᄀᆞᆺ득의 ᄂᆡ 셰간이 플러지게 되야는ᄃᆡ
엇그ᄌᆡ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이 탕진(蕩盡)ᄒᆞ니
집 ᄒᆞ나 불타 붓고 먹을 ᄲᅥᆺ시 젼혀 업다
큰나큰 셰ᄉᆞ을 엇지ᄒᆞ여 니로려료
김가 이가(金哥李哥) 고공들아 ᄉᆡ ᄆᆞᅀᆞᆷ 먹어슬라

– 허전, 「고공가 (雇工歌)」

*들먹는: 못생기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고공: 머슴.
*솟 ᄭᅩ면셔: 새끼 꼬면서.
*한어버이: 조부모(祖父母).
*사롬ᄉᆞ리: 살림살이.
*셔리: 써레. 말이나 소로 끌게 하여 갈아 놓은 논밭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구.
*보십: 보습, 보삽. 쟁기 등의 술바닥에 맞추는 쇳조각.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키는 연장.
*장기: 쟁기. 논밭을 가는 연장의 한 가지.
*여드레 ᄀᆞ리: 여드레 같이.
*여름지어: 농사지어.
*가옴여리: 부요(富饒)하게.
*동옷시: 동옷[胴衣]이. 남자가 입는 저고리가.
*호슈: 호수(戶首). 민호(民戶) 중의 수장(首長).
*ᄉᆡ오는 듯: 새우는 듯. 시기(猜忌)하는 듯.
*갬드러: 속임을 들어.
*화강도: 왜적(倭賊)을 일컬음.

[고공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너희닉 졀머ᄂᆞᆫ다 혬 혈나 아니ᄉᆞᆫ다. ᄒᆞᆫ 소ᄐᆡ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ᄒᆞ랴.] ᄒᆞᆫ ᄆᆞᅀᆞᆷ ᄒᆞᆫ ᄯᅳᆺ으로 티름을 지어스라. ᄒᆞᆫ 집이 가ᅀᆞᆷ열면 옷 밥을 分別(분별)ᄒᆞ랴. 누고ᄂᆞᆫ 장기 잡고 누고ᄂᆞᆫ 쇼을 몰니, 밧 갈고 논 살마 벼 셰워 더져 두고, ᄂᆞᆯ 됴흔 호미로 기음을 ᄆᆡ야스라. 山田(산전)도 것츠럿고 무논도 기워 간다. 사립피 ᄆᆞᆯ목 나셔 볏 겨ᄐᆡ 셰올셰라. 七夕(칠석)의 호ᄆᆡ 씻고 기음을 다 ᄆᆡᆫ 후의, ᄉᆞᆺ 쏘기 뉘 잘 ᄒᆞ며 셤으란 뉘 엿그랴. 너희 ᄌᆡ조 셰아려 자라 자라 맛스라.

ᄀᆞ을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ᄒᆞ랴. 집으란 내지으게 움으란 네 무더라. 너희 지조을 내 斟酌(짐작)ᄒᆞ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ᄒᆞ려므나. 멍셕의 벼ᄅᆞᆯ 넌들 됴흔 ᄒᆡ 구름 ᄭᅵ여, 볏뉘을 언지 보랴. 방하을 못 씨거든 거츠나 거츤 오려, 옥ᄀᆞᆺᄐᆞᆫ 白米(백미) 될 쥴 뉘 아라 오리스니. 너희닉 ᄃᆞ리고 새ᄉᆞ리 사쟈 ᄒᆞ니, 엇저ᄌᆡ 왓던 도적 아니 멀리 갓다 ᄒᆞᄃᆡ, 너희닉 귀눈 업서 져런 줄 모르관ᄃᆡ, 화살을 젼혀 언고 옷 밥만 닷토ᄂᆞᆫ다. 너희닉 다리고 팁ᄂᆞᆫ가 주리ᄂᆞᆫ가. 粥早飯(죽조반) 아ᄎᆞᆷ 져녁 더하다 먹엿거든,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ᄒᆞ려 ᄒᆞ니, 혬혜ᄂᆞᆫ 새 들이리 어닉 제 어더 이셔, 집 일을 맛치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ᄋᆡᄃᆞ라 ᄒᆞ며셔 ᄉᆞᆺ ᄒᆞᆫ ᄉᆞ리 다 쏘괘라.

[고공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너희들 젊었다 하여 셈하려고 아니 하느냐? 한 솥에 밥 먹으며 항상 관대하고 여유 있게 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치르는 것을 생각하자꾸나. 한 집이 부유하면 옷과 밥을 걱정하랴. 어떤 이는 쟁기 잡고 어떤 이는 소를 모니, 밭 갈고 논 삶아 벼 심어 던져주고, 날이 좋은 호미로 김을 매자꾸나.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무성해졌고 무논도 김(잡초)이 무성하여 간다. 말뚝에 도롱이와 삿갓을 씌워서 벼 곁에 세울지니, 칠석(七夕)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는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를 헤아려 서로서로 맞서라.

추수를 한 후면 집을 짓지 아니하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움은 네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멍석에 벼를 널어 말린들 좋은 해가 구름이 끼어 햇볕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찧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백미(白米)가 될 줄을 누가 알아 오겠는가.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고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멀리 아니 갔다 하되, 너희들 귀와 눈이 없어 저런 줄을 모르기에, 화살을 전혀 제쳐 놓고 옷과 밥만 다투느냐. 너희들 데리고 행여 추운가 굶는가.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해다가 먹였거든,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분별 있는 새 머슴 어느 때 얻어서, 집안일을 마치고 근심을 얻으려뇨?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도다.

■ EBS 수능완성 229P : 분천강호가

부모(父母) 구존(俱存)하시고 형제(兄弟) 무고(無故)함을
남대되 이르되 우리 집과 같다더니
어여쁜* 이내 한 몸은 어디 갔다가 모르뇨

<제1수>

부모님 계신 제는 부모인 줄을 모르더니
부모님 여읜 후에 부모인 줄 아노라
이제야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푸료

<제2수>

지난 일 애닯아 마오 오는 날 힘써스라
나도 힘 아니 써 이리곰 애닯노라
내일란 바라지 말고 오늘날을 아껴스라

<제3수>

형제 열이라도 처음엔 한 몸이라
하나가 열인 줄을 뉘 아니 알리마는
어디서 욕심에 걸려 한 몸인 줄을 모르느뇨

<제4수>

젊던 이 늙어 가고 늙은이 져서 가네
우리 종족(宗族)*이 또 몇이 있는고
이제나 잡 마음 없이 한잔 술을 나눠 먹세

<제5수>

공명은 재천(在天)하고 부귀는 유명(有命)하니
공명부귀는 힘으로 못 하려니와
내 타난 효제충신이야 어느 힘을 빌리오

<제6수>

– 이숙량, 「분천강호가」

*어여쁜: 가엾은.
*종족: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3] "기타주제" 고전시가 정복

■ 유배 주제 이해하기

(기출로 살펴보는 출제의 Point)

내님믈 그리자와 우니나니
산(山)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ᄃᆞᆯ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이하 생략)

- 정서, 「정과정」

■ 기행 주제 이해하기

■ 무상감, 세태비판 주제 이해하기 (상류층, 평민, 여성)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듸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인가 하노라.

- 길재의 시조

■ 사랑과 이별 주제 이해하기 (양반, 평민, 여성, 기생)

님 글인 상사몽(相思夢)이 실솔(蟋蟀)의 넉시 되야
추야장(秋夜長) 깊픈 밤에 님의 방(房)에 드럿다가
날 닛고 깁히 든 좀□을 ᄭᅵ와 볼가 ᄒᆞ노라.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던가.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평민, 여성층 주제 이해하기

① 평민, 여성 작가층의 3대 주제 이해하기

② 고려가요에 대한 이해

[고려가요]

개념 : 고려시대 평민들이 주로 부르던 우리말 노래

성격 : 평민문학, 구비문학

형식 : 3음보, 후렴구, 여음구

내용

- 남녀간의 진솔한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 등

작품 : 정과정, 사모곡, 청산별곡, 서경별곡, 가시리, 동동, 정석가...

③ 사설시조

[사설시조]

개념 : 초·중장이 무제한으로 길어지고 종장도 비교적 긴 장형 시조

형식 : 초장·중장이 김(대체로 중장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 3장, 종장의 첫 구는 반드시 3음절

향유 계층 : 평민, 아녀자들에게까지 확대

내용상의 특징

- 생활과 밀착된 현실 감각, 삶의 애환, 일상을 진솔하게 드러냄
- 구체적인 이야기와 비유(풍자)를 대담하게 도입함
- 전반적으로 해학미를 잘 구현함

■ EBS 수능특강 79P : 김인겸 / 일동장유가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海口)를 얼른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椏)*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萊) 산이 눈썹 같고,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 없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水疾)하야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네.
다행할사 종사상(從事相)은 태연히 앉았구나.
배 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對馬島)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이십 리 실상사(實相寺)가 삼사상(三使相) 조복(朝服)할 때
나는 내리잖고, 왜성(倭城)으로 바로 가니,
"인민(人民)이 부려(富麗)하기 대판(大阪)*만은 못하여도
서(西)에서 동(東)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館舍)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五層) 문루(門樓) 위에

열 아문 구리 기둥 운소(雲宵)*에 닿았구나.
수석(水石)도 기절(奇絶)*하고, 죽수(竹樹)도 유취(幽趣)* 있네.
왜황(倭皇)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없다.
산형(山形)이 웅장하고, 수세(水勢)도 환포(環抱)*하여
옥야천리(沃野千里) 생겼으니, 아깝고 애닯을손
이리 좋은 천부 금탕(天府金湯)* 왜놈의 기물(器物) 되어
칭제 칭왕(稱帝稱王)하며, 전자 전손(傳子傳孫)하니,
개돝* 같은 비린 유(類)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화(王化)에 목욕 감겨 예의국 만들곺다.

(중략)

- 김인겸,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 오륙도 : 부산 남구에서 바라다보이는 돌바위 섬. 썰물 때는 6도, 밀물 때는 5도로 보이므로 붙여진 이름.
* 만곡주 : 큰 배.
* 지함 :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 줄기에서 벋어 나간 곁가지.
* 대판 : 오사카.
* 운소 : 구름 낀 하늘.
* 기절 : 신기하고 기이함.
* 유취 : 그윽한 정취.
* 환포 : 사방으로 둘러쌈.
* 천부 금탕 : 천연의 요충지.
* 개돝 : 개와 돼지.
* 사천 리 육십 주 : 일본의 국토와 행정 구역.

[일동장유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일동장유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해석]
굿 보ᄂᆞᆫ 왜인들이 뫼히 안자 구버본다. 그 듕의 ᄉᆞ나히ᄂᆞᆫ 머리를 ᄲᅡᆺ가시ᄃᆡ 쏙뒤만 죠금 남겨 고쵸샹토 ᄒᆞ여시며 발벗고 바디 벗고 칼 ᄒᆞ나식 ᄎᆞ이시며 왜녀(倭女)의 치장들은 머리를 아니 싹고 밀기름 듬북 발라 뒤흐로 잡아 ᄆᆡ야 죡두리 모양쳐로 둥글게 ᄭᅮ여 잇고 ᄉᆞᆺᄎᆞᆫ 두로 트러 빈혀를 질러시며 무론(無論) 노쇼 귀쳔(老少貴賤)ᄒᆞ고 어레빗슬 ᄭᅩ잣구나. 의복을 보와ᄒᆞ니 무 업ᄉᆞᆫ 두루막이 ᄒᆞᆫ 동 단 막은 ᄉᆞ매 남녀 업시 ᄒᆞᆫ가지요 넙고 큰 졉은 ᄯᅴ를 느ᄌᆞ히 둘러 ᄯᅴ고 일용 범빅(日用凡百) 온갓 거ᄉᆞᆫ 가ᄉᆞᆷ 속의 다 품엇다. 남진 잇ᄂᆞᆫ 겨집들은 감아ᄒᆞ게 니(齒)를 칠ᄒᆞ고 뒤흐로 ᄯᅴ를 ᄆᆡ고 과부 쳐녀 간나히ᄂᆞᆫ 압흐로 ᄯᅴ를 ᄆᆡ고 니를 칠티 아냣구나. [대마도의 풍속]	굿을 보는 왜인들이 산에 앉아 굽어본다. 그 가운데 사나이들은 머리를 깎았으되 뒤통수 한복판을 조금 남겨 고추 같이 작은 상투를 하였으며, 발 벗고 바지 벗고 칼을 하나씩 차고 있으며, 여자들은 머리를 갂지 않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로 잡아매어,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려 있고, 끝은 두 갈래로 틀어 비녀를 찔렀으며, 노인과 어린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얼레빗을 꽂았구나. 의복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 옷단 없는 소매는 남녀 없이 한 가지요, 넓고 큰 접은 띠를 둘러 띠고 날마다 사용하는 온갖 것을 가슴 속에 다 품었다. 남편 있는 계집들은 이를 검게 칠하고 뒤로 띠를 매었으며, 과부, 처녀들은 앞으로 띠를 매고 이는 칠하지 않았구나.
졈심 먹고 길 ᄯᅥ나셔 이십 니ᄂᆞᆫ 겨요 가셔 날 져물고 대우(大雨)ᄒᆞ니 길이 즐기 참혹ᄒᆞ야 밋그럽고 쉬ᄂᆞᆫ디라. 가마 멘 다ᄉᆞᆺ 놈이 서로 가며 쳬번(遞番)ᄒᆞᄃᆡ 갈 길이 바히 업서 두던에 가마 노코 이윽이 쥬뎌(躊躇)ᄒᆞ고 갈 ᄯᅳᆺ이 업ᄂᆞᆫ지라. ᄉᆞ면을 도라보니 텬디(天地)가 어득ᄒᆞ고 일힝들은 간 ᄃᆡ 업고 등불은 ᄭᅥ뎌시니 지쳑(咫尺)은 불분(不分)ᄒᆞ고 망망(茫茫)ᄒᆞᆫ 대야듕의 말 못ᄒᆞᄂᆞᆫ 예놈들만 의지ᄒᆞ고 안자시니 오ᄂᆞᆯ밤 이 경상(景狀)은 고단코 위틱ᄒᆞ다. 교군(轎軍)이 ᄃᆞ라나면 낭픽(狼狽)가 오ᄌᆞᆨᄒᆞᆯ가. 그놈들의 오ᄉᆞᆯ 잡아 혼드러 ᄯᅳᆺ즐 뵈고 가마 속의 잇던 음식 갓갓지로 내여 주니 지져괴며 먹은 후의 그제야 가마 메고 촌촌 젼진ᄒᆞ야 곳곳이 가 이러ᄒᆞ니 만일 음식이 업듯더면 필연코 도주ᄒᆞᆯ씨 삼 경냥은 겨요ᄒᆞ야 대원셩을 드러가니 두통하고 구토ᄒᆞ야 밤새도록 대통ᄒᆞ다. [대원성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이십 리는 겨우 가서 날이 저물고 큰 비가 내리니 길이 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미끄러워 자주 쉬는지라. 가마 멘 다섯 놈이 서로 가며 교대하되, 갈 길이(도리가) 아주 없어 둔덕에 가마를 놓고 이윽토록 주저하며 갈 뜻이 없는지라.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일행들은 간 곳이 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별이 안 되고, 망망한 들 가운데 말을 알지 못하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오늘밤 이 정경은 고단하고 위태하다. 가마 메는 사람들이 달아나면 낭패됨이 오죽할까. 그 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듯을 보이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을 갖가지로 내어 주니 떠들며 먹은 후에 그제야 가마 메고 조금씩 나아가되 곳곳에 가서 이러하니 만일 음식이 없었더라면 필연코 도주했을 것이다. 삼경 쯤은 겨우 되어 대원성에 들어가니 두통하고 구토하며 밤새도록 크게 앓았다.

■ EBS 수능특강 82P : 안조원 / 만언사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젓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盡)케 되겠고나
초한건곤 한 영중에 장군 기신(紀信)* 되려니와
서풍 낙일 멱라수에 굴삼려*는 불원(不願)이라
차역 천명(此亦天命)* 할 일 없다 일생일사(一生一死) 어찌하리
출몰 사생(出沒死生)* 삼주야(三晝夜)에 노 지우고 닻을 지니
수로 천 리 다 지내니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적하기 태심하다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리 뉘 있으리
보이나니 바다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벽해상전(碧海桑田)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 지옥이로다
해수(海水)로 성을 싸고 운산(雲山)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끈쳐시니 인간은 아니로다
풍도(酆)*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뉘 집으로 가잔 말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더진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게하고
저 집에 가 주인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이 집 저 집 아모 덴들 적객 주인(謫客主人)* 뉘 좋달고
관력(官力)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勢不得已)* 맡았으니
관채다려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흩던지며 역정 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 보소 주인 아니 불상한가
이 집 저 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官人)들은 인정받고 손님네는 혹언 들어
구타여 내 집으로 연분 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
앞뒤에 전답 없고 물속으로 생애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웃녘에 장사 가니
삼망 얻어 보리 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신겸처자 세 식구의 호구하기 어렵거든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집이라고 서 볼손가 기어 들고 기어 나며
방 한 간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뛰자리 한 잎 주어 담하에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즘생도 하도 할사
발 남은 구렁배암 뼘 넘운 청진의*라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증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포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 드니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떵이 한 종자라
한술을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 놓고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굴물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웨라 /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빠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둑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기신 :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유방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장수.
* 굴삼려 : 억울함으로 인해 멱라수에 스스로 몸을 던졌던, 초나라의 충신 굴원.
* 차역 천명 : 이 일 역시 하늘의 명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를 오게 된 일을 말함.
* 출몰 사생 :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고비를 만남.
* 풍도 : 도교에서 말하는 지옥.
* 적객 주인 : 유배 온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
* 세부득이 : 사정이 어쩔 수 없어.
* 청진의 : 지네의 일종. 푸른빛을 띠고 있음.
* 남방 염천 : 남쪽의 몹시 더운 날씨.

[만언사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 전산후산에
황금 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게를 벗어 놓고 전간에 굼일면서
한가히 뵈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뚜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어
일분은 밥쌀하고 일분은 술쌀하여
밥먹어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하여 격앙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온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왼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다야 하랴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뫼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간 루에 올랐으랴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벌였으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차 하였으랴
산진메 수진메와 해동청 보라매가
심수총림 숙여 들어 산계야앙 차고 날제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심나서 형극에 걸리었다

■ EBS 수능특강 85P : 상사별곡

인간리별(人間離別) 만ᄉᆞ 즁(萬事中)의 독슈공방(獨守空房) 더욱 셜다
상ᄉᆞ불견(相思不見) 이ᄂᆡ 진졍(眞情) 그 뉘 알니
믹친 셔름 이렁져렁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ᄭᆡ나 ᄭᆡ나 자나 님 못 보니 가삼 답답
어린 양ᄌᆞ(樣子) 고흔 소ᄅᆡ 눈에 암암 귀에 징징
듯고 지고 님의 소ᄅᆡ 보고 지고 님의 얼골
비나이다 하나님께셔 이졔 보게 심기소셔
젼싱차싱(前生此生) 무ᄉᆞᆷ 죄로 우리 두리 싱겨나셔
그린 상ᄉᆞ 한ᄃᆡ 만나 잇지 마자 빅년 긔약(百年期約)
즉지 말고 한ᄃᆡ 잇셔 리별 마자 쳐음 밍셰(盟誓)
쳔금 쥬옥(千金珠玉) 귀에 빗기고 셰상 일불 관계ᄒᆞ랴*
근원(根源) 흘너 물이 되야 깁고 깁고 다시 깁고
사랑 모혀 뫼히 되야 놉고 놉고 다시 놉고
문허질 줄 모로거던 ᄭᅳᆫ어질 쥴 게 뉘 알니
화옹(化翁)조ᄎᆞ ᄉᆡ음 발나 귀신(鬼神)됴ᄎᆞ 희짓ᄂᆞᆫ다
일죠 낭군(一朝郎君) 리별 후에 소식죠ᄎᆞ 돈졀(頓絶)ᄒᆞ니
오날이나 긔별 올가 ᄂᆡ일이ᄂᆞ 사람 올ᄉᆡ
기다린 지 오ᄅᆡ더니 무졍셰월(無情歲月) 졀로 간다
소년 쳥츈(少年靑春) 다 보ᄂᆡ고 옥빈홍안(玉鬢紅顔)* 공노(空老)로다
오동 츄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거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져믄 날에 ᄒᆡᄂᆞᆫ 어이 더듸 가노
이ᄂᆡ 상ᄉᆞ(相思) 알으시면 님도 응당 늣기리라
독슈공방(獨守空房) 홀노 안ᄌᆞ 반야 잔등(半夜殘燈) 벗슬 삼ᄋᆞ
일촌간장(一寸肝腸) 셕은 물이 소ᄉᆞ나니 눈물이라
가삼속에 물이 나셔 퓌여나니 한슘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ᄇᆡ를 타고 아니 가랴
한숨 ᄭᅳᆺ히 불이 나면 님의 옷셰 당긔리라
교틔(嬌態) 겨워* 웃든 우슴 싱각ᄒᆞ니 목이 멘다
디쳑(咫尺) 동방(洞房) 쳔 리(千里) 되야 바라보니 암암(暗暗)토다
만쳡 쳔희(萬妾千姬) 그려 ᄂᆡ들 ᄒᆞᆫ 붓으로 다 그리랴
날기 돗친 학이 되면 나라가다 아니 가랴
산은 쳡쳡 고기 지고 물은 즁즁(重重) 흘너 근원 되니
텬디 인간(天地人間) 리별 즁에 날 갓트니 ᄯᅩ 잇ᄂᆞᆫ가
ᄭᅩᆺ츤 퓌여 졀노 지고 ᄒᆡ도 다 져물것다
초로(草露) 갓튼 이ᄂᆡ 인싱(人生) 무ᄉᆞᆷ 죄로 못 즉ᄂᆞᆫ가
바람 부러 구진비 와 구름 씨여 져믄 날에
오ᄅᆞᆨ가ᄅᆞᆨ 빈방으로 혼ᄌᆞ 셔셔 바자니며
님 계신 ᄃᆡ 바라보니 이ᄂᆡ 상ᄉᆞ(相思) 허ᄉᆞ(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ᄉᆞ(獨相思)ᄂᆞᆫ 예로붓터 잇것마는
나 혼ᄌᆞ 그리ᄂᆞᆫ가 님도 날을 그리ᄂᆞᆫ가
노류장화(路柳墻花)* 썩거 들고 봄빗츨 놀ᄂᆡᄂᆞᆫ가

날 ᄉᆞ랑ᄒᆞ든 ᄭᅩᆺ히 남 ᄉᆞ랑ᄒᆞ시ᄂᆞᆫ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드려 노흘 쥴을 모로ᄂᆞᆫ가
노류장화 썩거 들고 봄빗츨 놀ᄂᆡᄂᆞᆫ가
가ᄂᆞᆫ 길이 자최 나면 오ᄂᆞᆫ 길이 무되리라
ᄒᆞᆫ번 쥭어 도라가면 다시 오기 울년가

– 작자 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셰상 일불 관계ᄒᆞ랴: '세사 일분(世事一分) 관계하랴'의 착오인 듯함. 세상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
*옥빈홍안: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젊은이를 이르는 말.
*겨워: 이기지 못하여.
*노류장화: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 EBS 수능특강 320P : 정선 아리랑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무릉도원은 어데 가고서 산만 층층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며
모춘 삼월(暮春三月)*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모춘 삼월: 봄이 저물어 가는 음력 삼월.
*올동백: 제철보다 일찍 꽃이 피는 동백.

■ EBS 수능특강 320P : 유산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져서
거지중천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활씬 펴고
펄펄 백운 간에 높이 떠
천 리 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 장송(長松)은 낙락
에이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렴 드리온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솰솰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져 지방져 소코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가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주각제금(住刻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豊)이라
일출 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버려니 경개 무궁 좋을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소부 허유: 중국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주각제금: 두견새.

[유산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유산가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해석]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 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槪)를 구경을 가세. 죽장 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만산 홍록(萬山紅綠)들은 일년 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 취죽(蒼松翠竹)은 창창 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어 날아난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 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 가절(三春佳節)이 좋을씨고.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이어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꽃이 피어 봄 성에 가득하고 만물이 바야흐로 화창하게 피어나는구나. 시절이 좋구나 벗님들이여, 산천의 경치를 구경가자꾸나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하나의 표주박에 물을 들고 천리 강산 들어가니, 온 산의 꽃들과 풀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다시 피어나서 봄 색깔을 자랑하느라고 색깔마다 붉었는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은 난만한 가운데 꽃 속에 나비는 노닐고 있도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는 날아가는데 조각조각 금조각이요, 꽃 사이에 춤추는 나비는 가루가루 흩어지는 눈과 같구나. 봄 석 달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구나. 도화는 만발하여 점점이 붉어 있고, 물고기 배를 띄워 놓고 봄을 즐기니 무릉 도원이 바로 여기 아니냐!

■ EBS 수능완성 203P : [사시사] 중 '춘사'

그윽한 뜨락에 비가 내리고
목련 핀 언덕에선 꾀꼬리가 우네.
수실 늘어진 비단 휘장으로 봄추위가 스며드는데
박산향로*에선 한 줄기 향 연기가 하늘거리네.

미인이 잠에서 깨어나 새 단장을 매만지니
향그런 비단 띠에는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걷고서 비취 이불도 개어 놓고
시름없이 은쟁을 안고 봉황곡*을 타네.

금굴레에 안장 타신 임은 어디 가셨나.
정다운 앵무새는 창가에서 속삭이네.
풀섶에 날던 나비 뜨락으로 사라지더니
난간 밖 아지랑이 낀 꽃에서 춤추네.

뉘 집 연못가에서 피리 소리 흐느끼는데
금술잔에는 달이 비치네.
시름겨워 밤새 홀로 잠 못 이뤘으니
새벽에 일어나면 명주 수건에 눈물 자국만 가득하리라.

– 허난설헌, 「사시사」 중 '춘사'

*박산향로: 중국 산둥성에 있는 박산의 모양을 본떠 만든 향로.
*봉황곡: 조선 시대의 가사(歌辭). 남녀의 금실을 노래했으며, 제목은 중국의 사마상여가 지은 「봉구황곡(鳳求凰曲)」을 본떠서 지음..

[사시사 EBS 미수록 부분 출제Point]

■ 하사(夏詞)

느티나무 그늘은 뜰에 깔리고 꽃 그늘은 어두운데
댓자리와 평상에 구슬 같은 집이 탁 틔었다.
새하얀 모시적삼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부채를 부치니 비단 장막이 흔들린다.
계단의 석류꽃 피었다가 모두 다 지고
햇발이 추녀에 옮겨져 발 그림자 비꼈네.
대들보의 제비는 한낮이라 새끼끌고
약초밭 울타리엔 인적 없어 벌이 모였네.
수놓다가 지쳐 낮잠이 거듭 밀려와
꽃방석에 쓰러져 봉황비녀 떨구었다.
이마 위의 땀방울은 밤을 잔 흔적
꾀꼬리 소리는 강남 꿈을 깨워 일으키네.
<남쪽 연못의 벗들은 목란배 타고서
한아름 연꽃 꺾어 나룻가로 돌아온다.>
천천히 노를 저어 채련곡 부르니
물결 사이로 쌍쌍이 흰 갈매기는 놀라 날으네.

■ 추사(秋詞)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뜨락에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
못 위의 연꽃은 시들어도 밤까지 향기 여전하고
우물가의 오동잎은 떨어져 그림자 없는 가을.
물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서풍 타고 울리는데
발(簾) 밖에는 서리 내려 밤벌레만 시끄럽구나.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 낸 뒤
임 그리는 꿈을 깨니 비단 장막은 허전하다.
먼길 나그네에게 부치려고 임의 옷을 재단하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힐 뿐.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 써 놓았는데
내일 아침 남쪽 동네로 전해 준다네.
옷과 편지 봉하고 뜨락에 나서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네.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

■ 동사(冬詞)

구리병 물시계 소리에 겨울밤은 기나길고
휘장에 달 비치나 원앙 금침이 싸늘하다
궁궐 까마귀는 두레박 소리에 놀라 흩어지고
새벽빛 누각에 젖어드니 창에 그림자 어리네.
발(簾) 앞에 시비(侍婢)가 길어온 금병의 물 쏟으니
대야의 찬물 껄끄러워도 분내는 향기롭다.
손 들어 호호 불며 봄산(春山)을 그리는데
황금 새장 속의 앵무새가 새벽 서리를 싫어하네.
남쪽 내 벗들이 웃으며 서로 말하길
고운 얼굴이 임 생각에 반쯤 여위었을 걸.
숯불 지핀 화로가 따뜻해 봉황 피리를 불고
장막 밑에 둔 고아주를 봄술(春酒)로 바치련다.
난간에 기대어 문득 변방의 임 그리니
<말 타고 창 들며 청해(靑海) 물가를 달리겠지.
몰아치는 모래와 눈보라에 가죽옷 닳아졌을 테고
아마도 향그런 안방 생각하는 눈물에 수건
적시리라.>